

# 북한이탈주민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코리아리크루트가 주관하고 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회장 김방지)가 협찬한 제1회 북한이탈 주민 채용박람회가 11월 22일 통일회관(이북5도청)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 회원들이 아침부터 나와 이들을 안내하고 인쇄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쇄가 첨단산업임을 알리는 '인쇄정보산업의 개요'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이탈 주민 150여명과 30여 업체가 참여했는데 인쇄 및 관련업체에서는 홍일문화인쇄(주), 일홍인쇄(주), 대신문화사, (주)양지사, 대홍제책사, 삼홍인쇄(주), 문덕인쇄(주), (주)시대인쇄, (주)태성그래비아 등 9개사가 각각 단독 부스를 마련, 참여했다.

30여 업체 중 인쇄업체가 9개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여성경제인협의회가 하나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인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원활동을 전개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려 탈북자 수보다 기자들의 숫자가 오히려 많을 정도로 국내외 언



# 제1회 탈북동포 채용박람회

주최: 제1회 탈북동포지원위원회, 리크루트  
 후원: 통일부, 노동부, 여성노동위원회, 여성노동정책연구소  
 후원: 인제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인쇄업에 큰 관심

론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실제로 인쇄현장의 취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중 컴퓨터와 디자인 등을 배울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이 많아 앞으로 탈북주민들의 인쇄업 취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후 2시에는 통일부 김형기차관, 이탈주민후원회 우윤근회장, 리크루트 이정주사장, 이북도민회중앙회장, 김방지인쇄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를 컷팅하는 한편 개회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탈주민 후원회에 따르면 탈북자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명 내외의 적은 인원이었으나 94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급증하였고 2002년 9월말 현재 838명이 입국하여 지금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882명이며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하면 2,58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기자〉

